


## [ 1 주차 『아니 에르노 - ‘단순한 열정’』 ]

북클럽 팀명	벚꽃							
운영일시 / 장소	일시 : 2023년 04월 12일(수요일) / 장소 : CLC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19****	이름	박*영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0****	이름	백*연
	학번	2022****	이름	김*원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최*민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data-bbox="531 1243 699 1288"><b>[ 감상평 ]</b></p> <p data-bbox="523 1373 774 1406">본 도서 추천자: 박*영</p> <p data-bbox="523 1480 1070 1514">자전적 소설, 수필, 유부남과의 사랑, 상실, 기억</p> <p data-bbox="523 1588 1412 2004">아니 에르노의 단편 소설 “단순한 열정”을 읽은 후 4월 12일 모두 모여 토의했다. 단순한 열정을 추천한 박*영 학우를 제외한 다른 학우 모두 짧지만 강렬한 내용에 강한 인상이 남았다고 했다. 각자가 받은 강한 인상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저자인 아니 에르노가 직접 겪고 담담한 문체로 서술된 사랑 내용이 ‘불륜’이라는 점이다. 본 도서를 관통하는 특징은 사실 위주로 담담하게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인공과 사랑하는 상대인 외국인 남자 ‘A’ 모두 기혼자이며, 결론적으로 불륜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조원들 모두 주인공이 겪었던 사건들과 그녀의 내면에 쉽사리 공감하기</p>							

힘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주인공이 육체적인 사랑에 집착하는 모습과 그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에 대부분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둘째, 강렬한 내용이 소설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단순한 열정’은 에르노 개인의 경험에 입각한 불륜 내용을 가감없이 사건의 순서대로 나열한 소설이다. “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고백처럼 결말부를 제외하고 소설 전반에 걸친 주인공의 사랑은 폭풍과도 같았다. 이 사랑으로 인해 그녀의 일상, 몸과 정신은 완전히 망가진다. 무언가에 홀린듯 낮이 나간 상태로 하루를 보내거나 불륜 상대인 ‘A’와 관련된 이야기에만 신경을 쏟는다. 그녀는 가정이 있는 ‘A’를 끊임없이 기다리지만, 막상 만날 시간이 다가오면 너무나 초조해져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녀가 바라던 만남 이후에는 또 ‘A’의 전화만을 기다리는 일상이 반복된다. 이러한 내용의 묘사와 서술은 소설 내내 직접적이고 선정적이었다. 이에 대부분의 조원들은 이 책을 읽는 내내 적잖은 충격과 불편감을 느꼈다고 의견을 모았다.

####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

북클럽에 참여한 대부분의 조원들이 작가의 생애, 소설에 대한 해설 등을 조사해왔다. 그 이유는 바로 ‘왜 이런 소설을 써서 출판했을까?’ 하는 궁금함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원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대문호이고 명예가 중요한 학자이다. 그런 그녀가 사회적으로 용인이 힘든 일들을 하고도 그런 일들을 담담하게 써낸 이유와 그 속의 문학적 의미를 찾고자 모두가 자료조사를 했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조원들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는 ‘상실의 과정’과 ‘기억’이다. 우선 ‘상실의 과정’을 주되게 이야기 한 데에는 작가의 생애와 연관이 있다. 어린시절 하층 계급 노동자의 부모 밑에서 자란 에르노는 사립학교 입학 이후 부모의 삶을 부정하고 ‘지식인의 삶’을 걷는다. 문학 교수로 등단한 그녀는 다양한 소설을 출간하며 빈곤, 계급, 착취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주로 다루었다. 하지만 중년 이후 그녀는 사회학적 분석을 기초로 한 소설보다는 개인의 내밀한 상실감을 다루는 소설들을 출간한다. 조원들 모두 ‘단순한 열정’ 또한, 자아 상실의 과정을 다룬 작품으로 평가했다. 특히 “교수라는 힘겹게 성취한 지식인의 지위가 무너지고 종래에는 본능적인 모습만 남은 한 인간을 표현한 이유는 자신이 생각한 상실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하는 이\*소 학우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 또한, 조원들 모두 ‘기억’이라는 키워

드에 집중했던 이유를 두고 ‘이토록 강렬한 사랑의 경험들을 기억의 영역으로 가두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예상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도 망각할 것이다. 결말부에 이르러 ‘A’와의 사랑이 마무리 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평범한 삶을 사는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독한 사랑을 하는 순간엔 ‘A’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반대로 생각과 말과 행위 모두 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중에는 그와의 만남을 앞두고 심각한 편집증까지 보였다. 그런 그녀가 시간이 지날수록 ‘A’에 대한 감정이 무뎌지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책에서 그녀는 이 (거의 수필이라 할 수 있는) 소설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은 언젠가 잊혀지고 무뎌질 것이기에 기억의 영역으로 붙잡아두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조원들은 다른 소설과는 다르게 이 소설은 “아니 에르노가 자신의 추억을 기억이라는 영역으로 영원히 두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읽으면 더욱 쉽게 이해할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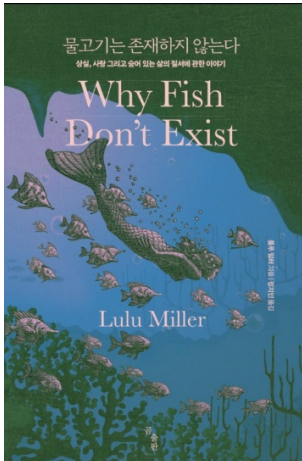
#### <그들의 사랑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책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 “이러한 형태의 사랑도 정당화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토의했다. 대부분의 조원들은 사회적 관습과 도덕적 판단을 유보하고 ‘불륜’ 이라는 행위가 인간의 본능 상 충분히 일어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인공의 상황과 감정이 일부 공감된다고 했다. 하지만 권\*재 학우는 주인공은 가정이 있는 유부녀이기에 자신만 잘자고 불륜을 저지른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형태와 방식, 연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들어본 후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2023년 04월 13일

참가자대표 : 권\*재

## [ 2 주차 『물루 밀러-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

북클럽 팀명	벚꽃							
운영일시 / 장소	일시 : 2023년 04월 26일(수요일) / 장소 : CLC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19****	이름	박*영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0****	이름	백*연
	학번	2022****	이름	김*원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최*민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data-bbox="520 1218 687 1263">[ 감상평 ]</p> <p data-bbox="520 1346 775 1379">본 도서 추천자: 김*원</p> <p data-bbox="520 1458 935 1491">현대소설, 범주는 족쇄, 휴머니즘 등</p> <p data-bbox="520 1565 1414 2024">2 주차에는 김*원 학우의 추천도서인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주제로 토의했다. 권*재 학우는 잘 짜여진 서사와 다양한 은유,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모두 좋았다고 했다. 다른 조원들 또한, 서사 속에서의 상징과 책에 소개된 실제 사건들을 알기 위해 책을 읽은 후 책 관련 유튜브 리뷰들을 보거나 해설을 읽어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조사를 했다. 최*민 학우는 “초반부까지 주인공이 존경하는 분류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 그리고 그가 존경하는 학자 ‘아가시’ 둘 모두 실존인물이고 찰스 다윈의 진화 생물학과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했다.”, 아울러 “책에서 소개된 샌프란시스코 지진, 우생학을 빌미로 한 강제 불임시술 사건 등 실</p>							

제 사건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더욱 내용에 이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영 학우는 “초반 부분은 다소 지루했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 긴장감이 심화되었던 것 같다. 이 책은 반드시 완독을 해야 할 책인 것 같다.”고 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내용을 하나의 서사로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조원들은 자연과학적 교양서적, 미국의 유명한 스타 과학자의 인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평전, 19 세기에서 20 세기까지 오도된 자연과학의 흐름을 비판하는 내용, 저자 본인의 성장 이야기 등 다양한 시점으로 이 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책 결말부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비판하는 문장인 “이것이 바로 다윈이 독자들에게 그토록 열심히 인식시키고자 애썼던 관점이다. 자연에서 생물의 지위를 매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계층구조에 매달리는 것은 더 큰 그림을, 자연의, “생명의 전체 조직”의 복잡다단한 진실을 놓치는 일이다.”가 이 책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에 모든 조원들이 동의했다.

책의 초반부에서 저자인 룰루 밀러는 19 ~ 20 세기 유명한 분류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생애와 연구에 대한 열정 등을 찬양하며 그가 분류학자로서 이룬 업적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조던에게 분류학자로서의 신념이 있었다. 동물들 분류하며 우월한 종과 열등한 종이 있으며 그 끝에는 인간이 있다고 믿었다. 노력여하에 따라 열등하거나 우월한 존재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그는 모든 종 하나하나가 “신의 생각”이며, 그 “생각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는 분류학의 작업은 “창조주의 생각들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중반부에 이르러 숭고했던 것만 같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부정적인 행적들이 밝혀진다. 스텐포드 학장 시절, 학교 설립자 부인을 독살했다는 합리적 근거들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건은 ‘우생학을 통한 대규모 불임 시술 사건’이다. 데이비드 조던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열등한 유전자와 우등한 유전자가 존재하고, 우등한 유전자만을 널리 퍼트려 인류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그릇된 생각들을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당시에도 있었던 우생학에 대한 비판들을 가볍게 무시하며 열등한 인자들을 숙아내는 활동에 앞장선다. 그는 정부 단체를 설득해 수없이 시행되었던 불법적인 불임시술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했다. 데이비드 조던은 현대 시대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활동들을 이어나가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활동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우생학을 윤리학의 관점이 아닌 과학의 관점에서 옳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우생학은 기본적으로 찰스 다윈의 이론을 오도하며 나타난 유사 과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윈은 한 종이 자연적 위기를 맞았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화’가 가능한 이유는 유전자 변이 덕분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자연계에서는 생물의 다양성과 종에서의 다양성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가치라는 것이다. 반면 데이비드 조던이 열렬히 신봉했던 우생학은 종의 동질성을 더욱 짙게 만드는 행동이며, 이는 종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한다.

결말부에 이르러서 스타학자였던 데이비드 조던의 화려한 인생 속 숨겨진 비극을 밝히며, 그가 생물 간의 분류와 체계에 집착한 이유, 같은 종 간에서도 범주화하고 잘못된 신념으로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후 자연과학의 양면성에 대해 설명하며 소설은 마무리된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읽은 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과 자신의 생각>

권\*재: “과학은 늘 내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진실을 비춰주는 햇불이 아니라, 도중에 파괴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무딘 도구라는 것을 깨닫는다.”

보통 학문이라 하면 가치 중립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책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우생학이나 오리엔탈리즘 같은 학문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때론 잘못된 시선으로 만들어진 학문과 체계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거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과학은 언제나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자신의 이론에 대한 확신만 아니라 신의 섭리라고 믿는 등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 같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박\*영: “분류는 족쇄이다.”

예전부터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한 사회가 다른 사회를 분류하면서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한 경우를 많이 봤다. 역사적으로 오리엔탈리즘도 서양 사회가 동양사회를 지배하기 위해 수많은 아시아 문화를 한데 묶어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 의미의 분류가 최근에는 한사람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는 것 같다. 나만의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분류하면서 그 사람을 오해하거나 소유하기 위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어지

는 것 같다.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길러야 할 것 같다.

이\*소: “돈을 이길 방법은 없고, 결국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보장해주는 안내자도, 지름길도, 마법의 주문 따위도 없다.”

자연은 인간 사회와 달리 우연적 요소가 지배하고 혼란스러워 보인다. 책 초반부에 소개된 엔트로피 법칙 또한 가장 규칙적인 에너지 형태에서 가장 불규칙적인 에너지로만 변환이 가능하다는 이론인데, 자연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어우러진 세계, 우리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분류와 체계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지만, 대 자연의 관점에서 최고의 성과는 다양성인 것 같다.

최\*민: “어류라는 범주가 이 모든 차이를 가리고 있다. 많은 미묘한 차이들을 덮어버리고, 지능을 깎아내린다. 그 범주는 가까운 사촌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놓음으로써 잘못된 거리 감각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상상 속 사다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제일 윗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인간이 가장 고등한 생물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다. 그런데 까마귀는 인간보다 장기 기억력이 좋고, 고릴라는 패턴 인식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인간은 사랑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하는데 오랑우탄도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인간을 가장 고등한 생물로 올려놓기 위해 오랑우탄의 입맞춤 행위를 상대적으로 미개한 행동으로 분류하는 등 분류와 체계를 인간 중심으로 설계한 것 같다. 올바른 것을 보기 위해선 이런 편향이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 같다.

백\*연: “자연의 사다리. 박테리아에서 시작해 인간에 이르는, 객관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는 신성한 계층구조”

이 한문장을 시작으로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았다. 데이비드 조던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학문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가장 우등한 존재를 인간으로 세우기 위해 종들의 다양성을 획일화했고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잘못되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이 사람과 사람을 구분 짓는 잣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무섭다. 이 잘못된 생각 하나로 수만명의 약자들에게 불임시술이 강제됐다. 생각 하나하나 조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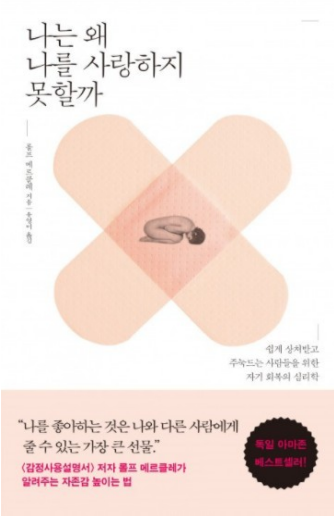
--	--

2023년 04월 27일

참가자대표 : 권\*재



# [ 3 주차 『롤프 메르클레 -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

<p>북클럽 팀명</p>	<p>벚꽃</p>							
<p>운영일시 / 장소</p>	<p>일시 : 2023년 05월 03일(수요일) / 장소 : CLC 음악감상실</p>							
<p>참석자 명단</p>	<p>학번</p>	<p>2021****</p>	<p>이름</p>	<p>권*재</p>	<p>학번</p>	<p>2019****</p>	<p>이름</p>	<p>박*영</p>
	<p>학번</p>	<p>2022****</p>	<p>이름</p>	<p>이*소</p>	<p>학번</p>	<p>2020****</p>	<p>이름</p>	<p>백*연</p>
	<p>학번</p>	<p>2022****</p>	<p>이름</p>	<p>김*원</p>	<p>학번</p>		<p>이름</p>	
	<p>학번</p>	<p>2022****</p>	<p>이름</p>	<p>최*민</p>				
<p>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감상평 ]</p>  <p>본 도서 추천자: 백*연</p> <p>심리학, 자존감, 내면의 비판자</p> <p>3 주차에는 백*연 학우의 추천으로 롤프 메르클레의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를 읽고 토의했다. 조원들이 모인 후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본 도서에 대한 각자의 평론을 했다. 몇몇 조원들은 책에서의 자존감과 관련한 내용이 다소 피상적이고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솔루션이 원론적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이 책에서 나오는 예시들은 주로 저자가 상담한 내담자들이 소개되는데 통계와 이론, 대규모 상담내역에 기반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고 했다. 하지만 권*재 학우는 ‘평소 스스로와 자존감에 대해 생각하지 않던 차에 이런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갖게 되어 좋았다.’는 의견을 내었다.</p>							

책의 서두에서는 책을 몇번씩 읽으면서 이 책에서 소개된 솔루션들을 끊임 없이 연습해야 할 것을 당부한다. 이후 본격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면 일어나는 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들’ ‘내면의 비판자’, ‘이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주제로 내용이 이어진다.

우선 자존감이 낮아지면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을 겪고 이로인해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특히 두려움과 우울감 등은 물론 완벽을 추구하며 병적으로 성공에 매달리는 등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신체적으로도 식이장애나 강박,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두번째 주제인 평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들’에서는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 한다. 특히 부모의 다소 엄격한 규칙, 자식에게 일관되지 못한 행동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서술한다. 이러한 부모의 행동으로 인해 자녀들은 부모의 애정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공포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열등감을 갖게되어 끊임없이 타자, 다른 세계와 비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점에서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인 ‘내면의 비판자’ 라는 키워드가 소개된다.

이후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와 내면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며 마무리된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또한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 것을 받아들이고 부모가 ‘나’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권유한다.

또한, ‘스스로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에서는 본격적으로 자기 존중이 왜 중요한지, 이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저자의 내담자들을 사례를 들어 이야기 한다. 특히 내면의 비판자가 개인마다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를 다룬다. 내면의 비판자는 평소 타인들의 이야기보다 스스로를 강하게 비판하며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큰 제약을 주는 것이라 정의하고 자존감의 향상을 위해선 내면의 비판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세명의 내담자들이 내면의 비판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는 과정, 이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예시를 통해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비판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비판자를 길들이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과 화해하고 장점을 발견하며, 매일 기분 좋은 일들을 상기하는 등의 솔루션이 그것이다.

#### <책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나>

대부분의 학우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의 내용에 대해 다소 아쉬움

을 남겼다. 물론 책의 내용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 것이 맞지만 내용이 다소 피상적이라는 점, 다른 심리학 서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욱 많지 않을까 하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이 책의 주제 중 하나인 ‘자신의 외모를 비난하지 말고 생긴대로 살자.’를 두고 많은 비판점이 있었다.

**<각자가 생각하는 자존감과 이를 회복하는 과정은?>**

조원들 모두 일상을 살면서 내부, 외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실제로 자존감이 깎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조원들 각자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를 크게 비판하는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 인지를 나누었다. 대부분의 조원들은 큰 사건들을 통해 스스로를 비판하기보다 작은 실수, 사건들을 통해 스스로를 자책한다고 했다. 특히 자신이 저지를 실수에 비해 크게 자책을 하거나 맥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이때 각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과정은 사뭇 달랐다. 박\*영 학우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끊임없이 책을 읽는다. 힘든 점을 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또 이외에 몇몇 학우들도 자신의 힘든 점을 잊기 위해 다른 일에 몰입한다고 했다. 반면 권\*재 학우는 “우울할 때면 괜찮아질 때 까지 잠을 잔다.”고 했다. 이처럼 각자 우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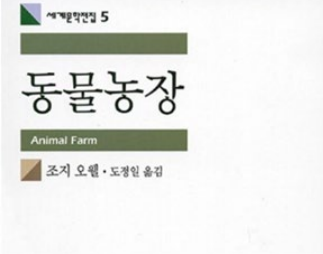
이후 박\*영 학우는 다른 심리학 관련 서적 몇권을 추천하며 토의를 마무리했다.

--	--

2023년 05월 03일

참가자대표 : 권\*재

## [ 4 주차 『조지 오웰- ‘동물 농장’』 ]

북클럽 팀명	벚꽃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3 년 05 월 10 일(수요일) / 장 소 : CLC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192610	이름	박*영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02117	이름	백*연
	학번	2022****	이름	김*원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최*민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 감상평 ]</p> <p>본 도서 추천자: 이*소</p> <p>풍자 소설, 근현대 러시아사, 공산주의, 독재, 평등</p> <p>5 월 10 일, 이*소 학우의 추천 도서인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을 읽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조원들은 대체적으로 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소 학우의 경우, “정말 잘 쓰여진 풍자 소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책을 추천한 이유를 밝혔다. 본 도서는 소련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을 ‘농장’이라는 배경을 통해 풀어내며, 그 과정에서 소련의 공산주의와 부패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드러내었다. 또한, 소설 속 캐릭터들과 상황은 스탈린과 트로츠키 등의 실존 인물과 계층, 그리고 독소 전쟁 등의 실제 사건으로 대치하여 볼 수 있다. 최*민 학우, 김*원 학우는 이 점이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요소라고 답했다.</p>							

토의는 이어서 ‘동물농장’ 속 이야기와 전반적인 당시 소련 역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제 역사와의 비교는 기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소 학우와 권\*재 학우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 책의 등장 인물들, 혹은 사건이나 배경, 장소들은 저마다 한가지 대상, 혹은 계급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배경인 농장이 바로 소련을 의미하며, 두 이웃 농장은 각각 영국과 독일을 상징한다. 스탈린과 트로츠키를 상징한다고 여겨지는 ‘나폴레옹’과 ‘스노볼’ 외에도 노동 계층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상징하는 ‘복서’ 등을 볼 수 있다. 핵심 사건인 ‘5 개년 계획’, ‘대숙청’, ‘독소전쟁’ 또한 ‘풍차 건설 계획’, ‘풍차 전투’ 등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백\*연 학우는 해당 역사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음에도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하며 본 도서를 높게 평가했다. 이\*소 학우는 ‘동물 농장’의 이야기와 실제 역사를 다룬 강의나 영상 등이 많이 있다며,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조원들에게 추천하였다.

#### <조원들끼리의 공동체 상황을 가정할 때, 각자는 어떤 입장에서 행동할까?>

인물 중심으로 흘러간 토의 방향에 따라, 조원들은 우리가 농장의 동물들 같은 공동체 상황임을 가정해보기로 했다. 소설 속 나폴레옹, 스노볼과 같은 지도자 역할이 될 것 같은 사람으로는 권\*재 학우와 박\*영 학우로 의견이 모였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만약 본인의 의견에 대해 반기를 들고 위험한 방향으로 공동체를 위협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냐는 박\*영 학우의 질문에, 권\*재 학우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쪽이 옳다고 쉽게 단정내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최\*민 학우 또한 이 의견에 동감하며 다양한 방향에서 상황을 파악해야할 필요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백\*연 학우는 본인이 공동체 상황 속에서 소설 속 양들처럼 크게 의심을 갖지 못하고 사회에 선동 당하는 입장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김\*원 학우도, 칠계명이 지배 계층의 편익을 위해 계속해서 수정되는 상황에도 동물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내용을 읽으면서 사회비판적 의식 함양의 필요를 느꼈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조원들 모두 ‘양’과 같은 입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갖기로 다짐하였다.

해당 주제를 통해 조원들은 독재 정권의 문제를 실감함과 동시에,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 느꼈다고 의견을 나눴다. 최\*민 학우는 만약 스노볼이 권력을 잡았더라도, 과정과 걸리는 시간 등이 다를 뿐, 나폴레옹과 같은 결과를 맞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고, 박\*

영 학우 또한 동의하였다. 백\*연 학우는 다른 조원들에게 만약 지도자 입장이라면 청렴이라는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소 학우는 나폴레옹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는 아니겠지만, 완벽하게 청렴한 태도로 꾸준히 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고, 다른 조원들 역시 동일한 생각이었다.

**<책의 시사점과 인상깊은 점>**

이 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장으로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을 꼽은 것에 조원 모두 동의하였다. 이 문장은 조지 오웰이 나타내려한 부패한 정권에 대한 풍자를 나타내며,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다. 조원들은 공통적으로 비유를 통한 풍자가 인상 깊었다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박\*영 학우는 당시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본 도서의 비유와 풍자들이 굉장히 참신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민 학우는 부패한 정치를 풍자하는 내용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북클럽 과정에서 실제 역사를 묘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전에 읽었을 때보다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권\*재 학우의 경우, 본 도서를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읽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읽어보니 역사와 사회적 문제, 정치 문제 등을 모두 다루고 있어서 다양하게 의견을 나눠볼 주제도 많고 유익했다는 의견이었다. 백\*연 학우는 실제 사건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여 낸 점이 흥미로웠고, 실제 역사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답했다. 김\*원 학우는 이전에 말한대로 비판의식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하며 지식을 쌓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책을 추천한 이\*소 학우는 역사를 다룬 소설 중 무겁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또, 굳이 러시아 역사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이 ‘동물 농장’이라는 책이 공동체라는 상황 속이라면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조원들 모두 이에 동의하며 토의를 마무리 하였다.

2023년 05월 10일

참가자대표 : 권\*재

## [ 5 주차 『프란츠 카프카 - ‘변신’』 ]

북클럽 팀명	벚꽃							
운영일시 / 장소	일시 : 2023년 05월 17일(수요일) / 장소 : CLC 음악감상실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19****	이름	박*영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0****	이름	백*연
	학번	2022****	이름	김*원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최*민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 감상평 ]</p> <p>본 도서 추천자: 박*영</p> <p>자아의 붕괴, 실존주의, 존재와 의미</p> <p>&lt;토의에 앞서&gt;</p> <p>5주차에는 박*영 학우의 추천으로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토의했다. 이 시기 우연찮게 SNS에서는 소설 ‘변신’의 주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부모님께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떡할거야?’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변신”에서도 주인공이 바퀴벌레가 되어버린 뒤 변하는 가족들의 모습과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변신’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 조원들 대부분 질문 내용이 고약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이 궁금해 물어봤다고 했다. 이 질문은 책의 내용이 포함된 질문 각 부모님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통 속에 넣고 키우겠다.”고 하시거나 “내다</p>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부모님도 있었다. 이밖에 자신이 주인공의 처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나누었다.

권\*재

“내가 갑충이 된다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게 도망갈 것 같다. 가족들이 받을 충격, 집에서 의무적으로 갑충이 된 나를 부양할 부담감이 심할 것 같다. 기회를 봐서 빨리 도망갈 것 같다.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닐까?”

이\*소

“벌레가 된다는 상상이 비현실적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집에 있을 것 같다. 밖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다른 이들이 더 심하게 대우하지 않을까? 벌레인 상태로 나가서 살면 단 한시간도 못버틸 것 같다. 그래도 살아야 하는데 소설 주인공 그레고르처럼 조용히 방에 숨어 있겠다.”

김\*원

“아무래도 가족들을 위해 내가 피해주는 게 서로에게 깔끔한 것 같다. 소설에서처럼 어느날 벌레가 된다면 나에게도 그렇지만 가족들에게도 너무 슬픈 사실 아닐까? 그러니 그냥 내가 떠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인 것 같다.”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조원들은 카프카의 ‘변신’에서 함의되어 있는 주제들을 각자 조사했다. 그중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는 크게 실존의 의미와 고독, ‘자아의 붕괴’이다.

권\*재

가장이었던 주인공 그레고르가 갑충, 즉 무가치한 인간으로 변신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내용 같다. 주인공은 자신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된 직장생활을 겪는다. 가족들 또한 그런 그를 표면적으로나마 존중했다. 하지만 그의 경제적 능력이 사라지자 가족들은 그를 홀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현대사회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존중받는 사회임을 은유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아닌 내가 가진 능력 혹은 내가 가진 재산 등으로 매번 평가받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이\*소

그레고르가 갑충이 된 이후 변화된 심리를 생각해 보았다. 그레고르는 선한 가장이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의 안위를 계속 걱정하고 보살피려 애썼다. 그러나 갑충이 된 이후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러워졌는지, 쓸모가 없어졌는지를 알고서 폐쇄적이고 무척 소심해졌다. 물론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방 밖을 나가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자신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분리해 생각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다.

김\*원

주인공인 그레고르가 하루아침에 바퀴벌레가 되었을 때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해와 소통이 결여된 경험을 한다. 이로 인해 그레고르는 자신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고통을 경험한다. 주인공이 바퀴벌레같이 하등한 존재로 바뀌었을 때 가족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는 장면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전적인 경제적 도움이 된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면서 그를 쓸모없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아이러니한 점은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니 온전히 그레고르에게 의존적이었던 가족들이 하나 둘 자립했다는 점이다. 물론 먹고사는 문제이기에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장면이 가장 힘들었다.

<나도 이런 일을 겪는다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소설의 내용처럼 어느날 갑충이 된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까?” 라는 질문이 나왔다. 모든 조원들은 소설 속 가족들의 행동은 분명 냉소적이었지만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최\*민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내가 갑충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사람이 된다면,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된다면 서로 너무 힘들 것 같다. 물론 존재만으로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현대사회에서 이런 경향이 심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느정도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박\*영

가족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치유 받을 수 있는 공동체인데 능력에 따라 이러한 속성들이 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채로 계속 부양 받는 이들이라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다. 자신의 의지로 가정에 피해를 주는 이들은 차치하고서 순수하게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어도 계속 집에만 있는다면 분명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것 같다. 아니면 말을 하지 않지만 은근한 차별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경제생활과 능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2023년 05월 17일

참가자대표: 권\*재

## [ 6 주차 『에리히 프롬 - ‘사랑의 기술’』 ]

북클럽 팀명	벚꽃							
운영일시 / 장소	일시 : 2023년 05월 24일(수요일) / 장소 : CLC 음악감상실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19****	이름	박*영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0****	이름	백*연
	학번	2022****	이름	김*원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최*민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b>[ 감상평 ]</b></p> <p>본 도서 추천자: 박*영</p> <p>&lt;책을 읽은 소감은?&gt;</p> <p>조원들 중 일부는 이 책이 다루는 사랑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학술적이었던 점이 흥미로웠다고 했다. 권*재 학우는 제목을 보고 연애 기술을 알려주는 소설인 줄 알았는데 학술적인 의미의 사랑의 속성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 내용이라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최*민 학우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구분 지은 점이 다소 의아했지만 사랑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 점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학우들도 사랑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만을 지닌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강렬한 감정의 크기가 아닌 용기와 신앙, 인내심과 같은 다양한 덕목이 접목</p>							

돼야 하는 ‘기술’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최\*민

‘사랑의 기술’에서는 사랑에 대한 왜곡된 여론이나 예측하지 못한 몇 가지 사실이 자신의 사랑에 대한 판단, 생각을 무효화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고수하고 용기를 지닌 채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 인 것 같은데 평소 ‘사랑’이라는 주제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속성과 실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겠다.

박\*영

이 책을 읽으며 지난 사랑을 돌이켜 보았다. 질투와 확대된 이기주의로 가득 찼던 어린 시절의 사랑을 반성한다. 그 때 조금은 더 이 책에서의 내용처럼 사랑을 ‘주는 것’에 만족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사랑의 실천 내용이 나오는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명상과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다. 매번 며칠 못가서 실패한 것들이지만 이번엔 다시 꾸준히 명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든게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요즘 시대에 꾸준한 사랑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내용인 것 같다.

이\*소

“사랑의 기술”은 사랑에 대한 현명하고 깊은 통찰력을 제시한 것 같다. 이 책을 본 후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성장과 개인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행위임을 강조한다. 각자가 의존해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랑의 형태와는 분명 다르고 더욱 성숙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김\*원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도 좋았지만 사랑을 하기 위한 개인의 자율성과 성장을 강조한 것이 더 공감되었다. “사랑의 기술”은 자아의 충돌과 내적 갈등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다루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랑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읽으며 사랑이라는 속성에 대해 처음 생각해보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고 스

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백\*연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알아가고 내면의 충돌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책에서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자기 인식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건강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를 보통 스스로의 취미로 만들기 위해,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기 위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사랑을 구축하기 위해 자기 개발에 힘써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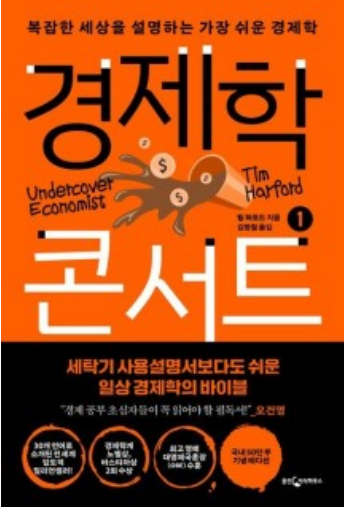
토의를 마칠 무렵 조원들은 각자의 연애관과 가족들 간의 표현 방식 등을 이야기했다.

--	--

2023년 05월 24일

참가자대표 : 권\*재

## [ 7 주차 『팀 하포드- ‘경제학 콘서트’』 ]

북클럽 팀명	벚꽃							
운영일시 / 장소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요일) / 장소 : CLC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권*재	학번	2019****	이름	박*영
	학번	2022****	이름	이*소	학번	2020****	이름	백*연
	학번	2022****	이름	김*원	학번		이름	
	학번	2022****	이름	최*민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b>[ 감상평 ]</b></p> <p>본 도서 추천자: 권*재</p> <p>경제학, 생활경제, 한계 (marginal) 등</p> <p>7 주차에는 권*재 학우의 추천도서인 팀 하포드의 ‘경제학 콘서트’를 주제로 토의했다. 책 선정할 때 장하성의 ‘왜 분노해야하는가’를 선정했지만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해 ‘경제학 콘서트’로 교체되었다. 토의 전 조원들은 책을 읽었지만 생경한 경제학 용어와 현실과는 사뭇 다른 분석법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주차에는 경제학과인 권*재 학우를 중심으로 QnA 를 한 후 경제학을 꼭 배워야 할 이유를 설명한 후 토의하기로 했다.</p> <p>‘경제학 콘서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속에 담겨져있는 경제학 개념들과 용어들을 비교적 쉽게 설명한 책이다. 권*재 학우의 말에 따르면 실제 경제학</p>							



과 학생들이 학부 수업 내내 듣는 개념들이며 교과서에 담긴 설명보다 더욱 쉽게 설명되어 있다고 했다. 각 챕터마다 한계 (marginal) 개념, 가격차별화, 완전경쟁시장,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게임이론, 비교우위, 중국을 모델로 한 거시경제 모델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권\*재 학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한계 개념과 가격차별화,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조원들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으로 수요자, 공급자 모두 각자의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를 이용해 가격 차별화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했다. 영화관 조조할인, 쿠폰 할인의 예를 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영화를 보는 불편한 행위를 하는 사람, 쿠폰을 올려서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애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를 이용해 할인을 해줌으로써 일반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 (일반적 수요자)와 가격을 차별하는 전략이라고 했다. 즉, 장애물을 줌으로써 이 장애물을 넘는 이들에겐 가격을 할인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후 최\*민 학우는 “삼성이 휴대폰 가격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싸게 받는 행위도 가격차별일까?”라는 질문을 했고, 권\*재 학우는 “시간을 장애물로 한 가격차별이라 할 수 있고 앞선 예시보다 더욱 세분화된 가격차별이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 황폐화를 설명했다. 이렇게 황폐화된 시장을 레몬 마켓이라 부른다고 하며 좋은 퀄리티의 중고차가 왜 중고차 시장에서 보기 힘든지, 핸드폰 계약 등을 한 직후 무언가 사기당한 느낌이 강하게 들면 대부분 바가지를 쓴 것이 맞는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중고차를 판매하기 전 공인된 센터에서 검사를 받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설명했다. 이밖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권\*재 학우를 중심으로 한 간략한 질문시간이 끝난 후, 김\*원, 백\*연 학우 등은 경제 관련 뉴스를 읽으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진입장벽이 높아 읽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 중심으로)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원들은 최근 몇 년간 국내외 경제 관련한 이슈들을 각자 이야기했다. 그 중 팬데믹 전후로 과열된 금융 (주식, 채권 등)시장,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주로 이야기 했다. 우선, 이\*소 학생은 “코로나 팬데믹부터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했었다.”고 밝히며 주변에서 주식 등으로 수익을 낸 이들을 보면 왜인지 모를 박탈

감이 들었고 “나도 주식을 해야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했다. 대부분의 조원들은 이\*소 학우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지금 돌이켜보니 그 때는 주식 광풍이었던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그 당시 상황도 주식 버블 현상인가” 하는 최\*민 학우의 질문에 다른 조원들은 분명히 거품이 낀 것 같다고 했다. 이후 김\*원 학우가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다. 박\*영 학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가 침체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뉴스를 보았다.”고 답했다. 뒤이어 권\*재 학우는 이런 상황이 길고 천천히 일어날 것이라 밝히며 이를 두고 ‘슬로우플레이션’이라 부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세계 경제가 불안해진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조원들은 미국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양적완화의 부작용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했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현금의 가치가 높아졌고,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었다.

토의가 마무리되어갈 때쯤, 각자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나누고 각자의 대략적인 소비 패턴에 대해 나누었다. 6 명의 학우 중 과반 이상이 1년 중 한번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 용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출 중 대부분은 식비로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매 끼니를 먹을 때마다 큰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후 저축을 하기 위해선 절약을 생활화해야 하는데 충동구매가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기회가 될 때 가장 유명한 행동경제학 서적인 ‘넛지’를 읽기로 약속했다.

--	--

2023년 05월 31일

참가자대표 : 권\*재